긴급진단 제주도 하수처리 정책 이대로 좋은가(하)

하수전문기업-도, 신뢰 깨져

전문업체 "도에 하수도 관망도 요청해도 묵묵부답"
도 "도내 업체 대부분 역량 부족… 5개업체엔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말 부터 도내 오수발생량 1일 30t 이상 건축물(일반 음식점 120평 정도·공동주택 39세대 등) 신·증축시(용도변경 포함) 하수도 전문 설계사(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작성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검토보고서를 첨부해 하수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상하수도본부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하수도 분야 협의내용을 개발행위허가자가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에 차질이 발행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건축사들은 전문업체(엔지니어링)에 의뢰해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비용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건축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엔지니어링회사에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관망도'가 필요한데 일부 업체에만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수도 관망도는 여러 갈래로 분포돼 있는 하수관로의 위치와 모양·관경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도면이다.

A건축사는 "건축주가 제주시 상업지역에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어떤 관을 통해서 제주하수처리장까지 가고 있고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수관의 과부하 여부와 하수관의 적정성까지 조사해 오라는 것"이라며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행정에서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깔아놓는 것이다. 도시지역안 건물에서 이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주하수처리장 포화문제가 발생하자 행정은 이제와 도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제주시내에 오피스텔을 지을 때 유량조정조 설치 요구로 공사비 과다지출(5억~10억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후 오는 2025년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이 이뤄지면 이 유량조정조 시설은 폐쇄되는데 이때 관리문제와 악취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B엔지니어링회사 관계자는 "이전에 하수도 관망도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제공해 주지 않아 포기를 했다"며 "초기 하수도 관망도를 제공받은 몇몇 업체는 상당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하수도 설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들어 와서 이제야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4군데 엔지니어링에서 공간정보(하수도 GIS)제공 요청이 들어와서 하수도 관망도를 제공해 주었다. 현재는 5군데로 늘었다"며 "도내 29개 엔지니어링사가 있는데 대부분 역량이 안된다. 이제야 역량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시 용담2동 무료주차장이 공항이용객들이 세워 둔 차로 가득 차 주차를 못하는 지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강민성기자

무료주차장 얌체 장기주차 골머리

공항 이용객 점령… 주민들은 차 못세워 '부글부글'

타지역으로 가는 도민들이 제주공항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가면서 주차장이 공영 기능을 잃고 있다. 더욱이 장기간 차를 주차하는 얌체행위가 적지 않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쏟아내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용담2동 옛 서문파출소 동쪽의 1505㎡ 면적에 52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이 곳은 제주공항과 그리 멀지 않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공항 이용객들이 일주일 이상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용담2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이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찼다. 차들이 주차하기 위해 안으로 계속 들어왔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수시로 목격됐다. 주차장 입구와 맞물린 도로변도 주차된 차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용담2동 무료주차장에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이유는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에 주혈(집자리 기둥 구멍) 등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되면서다. 제주시는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은 결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정밀조사 발굴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제주시는 복층화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현장 보존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사업지를 노형동으로 변경해 조성하고 있다.

주민들은 복층화 사업이 무산됐지만 제주시를 향해 장기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강모(45)씨는 "공항 이용객들이 일주일 이상 장기간 주차해 정작 필요한 주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층화 사업이 무산됐지만 장기 주차 근절 대책을 행정이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주차차량을 방지하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유료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 및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주차장 7개소 868면을 조성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285억9500만원이 배정됐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제주대 입구 사거리 4중추돌사고 첫 공판

과적에 상황대처 미흡… '人災'

적량 2.5t 초과해 운행
브레이크 경고등 무시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교통사고'가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과적 규모가 2.5t에 달했고, 사고 직전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하다는 차량 경고등을 무시한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도내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가 적재 기준을 2.5t이나 초과한 약 8.3t의 감귤류(한라봉 등)를 실은 채 운행에 나섰고,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트럭에서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는 적재 기준을 2.5t 초과한 과적 상태로 경사가 심한 5·16도로를 운행했다"며 "특히 사고 지점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30초만 정차한 채 그대로 도로를 달렸다. 통상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들어오면 1분30초 정도는 정차해야 에어가 충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도로가 평지로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 나머지 브레이크 에어는 주행 중에 자동으로 충전될 줄 알았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화물운송업체 대표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고의 유족들이 방청에 나서 A씨와 B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는 "큰 사고를 당했지만 누구 한 사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트럭의 차주라는 자가 나타나 '차를 폐차해야 한다'는 한풀이만 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을 들어 오는 2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노름하다 돈 잃자 흉기 폭행 50대 실형

노름하다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0시17분쯤 지인의 집에서 도박을 하던 중 자신의 돈을 다 따간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현금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벌였고, B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복부 내 장기 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은범기자

남원읍 비닐하우스 화재

8일 새벽 0시1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닐하우스 일부가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은 냉장고 전원선이 단락돼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갱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